

미래임실건설 새지평 연다

군, 성장기반 재설계 집중 임실읍·옥정호 개발 등 7대 핵심시책 중점 추진

임실군이 2018년 무술년 새해를 맞아 새로운 미래임실 건설을 위한 새로운 성장기반을 재설계하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간다.

군은 올해 민선 6기 군정방침인 '새로운 변화, 살고싶은 임실'이라는 기치를 앞세워 함께하는 희망농업, 활력있는 지역경제, 찾아가는 맞춤형, 품격있는 교육문화의 핵심전략 아래 7대 중점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

7대 중점시책 중 가장 우선은 임실읍 도시경쟁력 강화로, 임실을 소재지의 도시기반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전개한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2020년까지 42억원을 투입해 임실천 경관개선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며, 내년까지 50억원을 들여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한다. 이외에도 올해까지 임실천 지방하천 정비와 임실시장 다기능 주차장, 농어촌 임대주택 건립을 마무

리는 등 임실을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임실군의 최대 현안사업인 옥정호 명품 생태관광기반 구축 사업도 한층 빠르게 전개된다. 특히 옥정호 수변관광도로 개설사업의 국비확보로 탄력을 받은 옥정호 관련 사업은 섬진강 에코뮤지엄과 옥정호 물문화물레길 조성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옥정호 수변관광도로 개설사업의 타당성 용역과 함께 총 2,334억원이 투입되는 옥정호 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한 밑그림도 그려진다.

임실N치즈축제가 2018년 문화관광체육부 유망축제로 선정되면서 날개를 단 임실N치즈산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임실치즈테마파크에 70억원이 투입되는 사계절 장미원이 조성되고, 임실N치즈 6차산업화지구 조성사업(30억원)과 함께 치즈테마공원(118억원)이 현안사업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고려와 조선의 건국설화를 동시에 담고 있는 성수산 산림휴양개발 사업도 올해 태조 희망의 숲(84억원) 조성 사업과 함께 성수산 산림바이오 힐링타운 조성사업 추진 등도 병행된다.

나물천지 공모사업 선정으로 새해부터 탄력을 받은 농식품 융복합 산업도 임실N양념산업, 과수융복합사업 등이 지속 추진된다.

임실군의 으뜸행정으로 손꼽히는 맞춤형 효심복지 사업은 올해 더 다양한 특수시책으로 전개된다. 임실군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을 비롯, 농어촌단일요금제, 작은목욕탕 및 물리치료실 확대 운영 등이 이뤄진다.

마지막으로 미래인재 양성의 산실인 봉황인재학당이 올해 첫 신입생을 맞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며, 우수장학생지원, 인적네트워크 구축 등 명품인재 육성 사업 등이 적극 추진될 전망이다.

심 민 군수는 "올해 군정운영 방향을 배천작전(配天作鎮)으로 정한 만큼, 초심을 잃지 않으며 군민행복을 위해 핵심시책들을 차근차근 추진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며 "민선 6기 취임 당시 약속했던 새로운 변화, 살고싶은 임실을 완성하는 주안점을 두고, 오롯이 군민들만 바라보며 뚝뚝씩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기억 기록구축사업 박차

일상의 소리 채집

남원시 문화도시사업추진위원회에서는 남원시민들의 일상 생활 모습과 추억의 소리를 수집하는 '남원메모리즈'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남원메모리즈'는 지나간 남원의 옛 모습과 시민들의 추억을 담아내어 문화자원으로 만드는 프로젝트이다. 1차적으로 2015년~2016년에 시민들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을 수집하는 작업을 하여 총 4,800여점의 사진과 육성을 수집했다.

2018년 남원메모리즈는 남원의 숨겨진 이야기들을 발굴하고 지리적 특성으로 생겨난 각 마을의 풍습과 사투리 등을 채집하는 소리 기록 구축사업으로, 사운드아티스트 전광표 작가가 시민수집요원과



함께 남원의 여러 마을을 방문하여 소리를 채집할 계획이다. 남원 문화도시 관계자는 '메모리즈는 남원시민의 이야기를 기록하여 소중한 문화자산으로 남기는 프로그램으로, 수집된 모든 이야기는 남원시민들을 위해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이다. 앞으로도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남원 문화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지역 매아리

남원 관문도로 가로수길 조성

3억8400만원 투입 1만여주 식재

남원시는 서남대~롯데마트 3.4km 관문도로 구간에 도시숲 사업비 3억8,400만원으로 칠엽수 외 3종 1만2,531주를 심어 2018년 확 달라진 가로수길을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의 첫 이미지가 될 시도호선 양쪽 가로변에는 앞이 크고 수형이 웅장하고 단풍이 아름다운 칠엽수를 식재하였고, 하층부에는 교목과 어우러지고 줄기에 달린 수피가 독특한 화살나무를 식재했다.

중앙분리대 화단에는 꽃과 푸르름이 조화를 이룬 이팝나무와 소나무를 심었으며, 오수-월라간 도로공사 시행중인 익산지방국도관리청과 건립할 상호 협력해 품격있는 조형소나무 124주를 심었다.

가로수는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대기정화기능 뿐만 아니라 도시이미지를 완성하고 개선시킬 수 있는 미적기능도 뛰어나 달라진 관문도로 가로수길 조성으로 남원시의 이미지를 크게 제고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산림과 관계지는 2018년에도 관문도로의 옛 시민화단을 남원의 대표적 상징화단으로 조성하고, 점군체전 대비 가로수 하층부 금계국을 심어 남원 방문객들에게 활기차고 화사한 도로경관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유영철 기자

순창군 친환경농업 경쟁력 강화 '고배'

추진과제 선정 68억원 투자

순창군이 '군민과 자연환경이 행복한 유기농업 순창'을 올해 친환경농업 비전으로 정하고 68억여원을 투자해 친환경농업 경쟁력 높이기에 나섰다.

군은 친환경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산기반확대, 유통소비 활성화, 친환경농업인 소득안정지원, 농업환경 보전, 친환경 과학영농실현 5개 분야를 중점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우선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확대를 위해서는 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 유기농업자재 등을 지원하고 친환경농업 컨설팅과 유기농비 포트이양 시범단지, 친환경농업 아카데미 운영 등의 사업을 진행한다.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확대를 위해 11개 사업에 30억여원을 투자하게 된다.

친환경농산물 유통·소비활성화에도 집중한다. 우선 친환경농산물 유통조직을 집중 육성하고, 10개학교에 학교 친환경농업 실천사업도 진행한다. 친환경 버 유통업체 물류비와 친환경쌀 소비장려금도 지원해 친환경농산물의 유통과 소비활성화에 나선다. 6개사업에 8억 7천여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순창군이 '군민과 자연환경이 행복한 유기농업 순창'을 올해 친환경농업 비전으로 정하고 68억여원을 투자해 친환경농업 경쟁력 높이기에 나섰다.

친환경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지원하는 사업들도 추진된다. 소득안정지원에는 4개 사업에 23억여원이 투자되며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생산장려금 지원,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급 사업이 추진된다.

친환경농업의 핵심요소인 농업환경 보전을 위한 사업도 이뤄진다. 4개 사업에 2억 7천만원이 투자된다.

친환경 과학영농 실현을 위해서는 종자육종연구실 운영과 토양미생물연구실 운영, 농업환경 농산물안전성분 석실 운영 등을 통해 순창의 친환경농업의 성장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4개 사업에 2억 7천여만원이 투자된다. 군은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 2020년까지 인증면적은 1,500ha까지 확대하고 친환경유기농자재 1,000톤 보급, 토종종자 육종 발굴, 친환경 종자 생산보급 등을 이뤄 나간다는 목표를 세웠다.

황숙주 군수는 "순창군의 농업경쟁력의 핵심은 친환경농업에 있다"면서 "지난해 문을 연 친환경연구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친환경농민들이 실질적인 부를 창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초고령사회 임실군 고독사 제로화 온힘

최근 고독사가 큰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임실군이 예방에 초점을 맞춘 '고독사 ZERO!' 사업을 본격화한다.

군은 본격 활동에 앞서 지난해 9월 관내 19세 이상 1인 가구 중 민·관 복지서비스와 연계되지 않은 가구를 전수 조사했다.

이 결과 노인, 장애인 및 주변이웃과 교류가 단절된 청·장년가구 등 공적지원 및 민간서비스 등을 받지 못하고 있는 70여명을 발굴했다.

발굴 가구를 '고독사 고위험가구'로 선정하고 맞춤형 방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달 20일 임실시니어클럽(행복한사업단), 전북임실지역자활센터(두루두루밥사업단), 임실군사회

복지협의회(심부름센터)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내년부터 협약기관은 주 1회 영양을 고루 갖춘 반찬을 권역별로 각 읍·면까지 배달한다.

또한 12개 읍·면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복지이장, 자원봉사자 등 지역안전망을 적극 활용, 매주 대상가구를 직접 방문해 반찬을 전달하고 애로사항이나 특이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군 관계자는 "홀로 쓸쓸하게 마지막 생을 보내는 안타까운 고독사가 지역에서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쌍계지구 지적재조사 주민설명회

순창군은 최근 쌍치면 금계2마을 등 3개 마을회관에서 2018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인 쌍계지구(730필지, 33만㎡)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주민설명회에서는 사업지구 토지소유자와 지역주민 174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지구 선정배경, 사업목적, 추진절차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상황과 맞지 않는 종이 도면의 경계를 바로잡아 국토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

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2030년까지 진행되는 국책사업으로 2013년 남계지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5개 지구를 시행했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경제분쟁에 따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군민에게 더 다가가는 실시간 토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지적재조사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토지소유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만큼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우리 땅의 뼈대 백두대간의 모든 것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로 151
남원시 산림과 백두생태 063-620-6944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063-620-5751
백두대간생태교육장 트리하우스 063-620-5754

- 백두대간 역사관
- 3D 애니메트로닉스관
- 어드벤처 라이더관
- 5D 씨름영상관

하나 백두대간 달리다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호랑이 라이더를 타고 백두대간의 자연을 흥미롭게 느낄 수 있는 코너

둘 백두대간 산간마을
백두대간 7천여의 삶의 모습과 주요마을들의 모습들을 영상으로 담아 현대인들의 메마른 정서에 추억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코너

셋 노치와 범이
남원시 주천면 노치마을 당산제를 모티브로 노치소년과 백호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흥미롭게 묘사한 360도 씨름영상